

‘NP이 있다’ 구성의 대칭성과 비대칭성*

이성우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Abstract>

Lee Sung-Woo, 2020. A Study on symmetry and asymmetry of ‘NP이 있다’ composition. *Korean Semantics*, 7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ssibility that the composition of ‘NP이 있-’ is a unit and clarify its semantic features. This study was to discuss ‘NP이 있-’ composition from the viewpoint of symmetry and asymmetry by subdividing it into ‘NP1와 NP2이 있-’ and ‘NP1에/에게 NP2가 있-’. This study was to comprehend that ‘NP1와 NP2이 있-’ had a meaning of symmetry but it was distinguished from the symmetric construction in case of ambiguity.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NP1에/에게 NP2가 있-’ was considered as asymmetry but that it secured the meaning like symmetry because of the context or different sentence component. In addition, this study was to mention the direction of asymmetry as shown in ‘NP1에/에게 NP2가 있-’ composition.

핵심어: 구성(composition), 기능동사(support verb), 있다(issda), 복합 서술어(complex predicates), 대칭 구문(symmetric construction), 대칭성(symmetry), 비대칭성(asymmetry), 중의성(ambiguity), 방향(direction), 상호성(reciprocity).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B5A07094304).

1. 서론

한국어에서 ‘있다’는 최다 빈도 용언이다(유현경 1998: 180). 그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있다’를 소재와 소유로 크게 분류해왔다(박양규 1975, 신선경 2002, 고영근·구본관 2008 등). 더불어 최근의 논의에서는 ‘있다’를 다각도로 분류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박진호 2017, 남경완 2017, 이성우 2019가, 이성우 2019나 등). 이와 함께 ‘있다’에서 문법화한 형태들인 ‘-어 있-’, ‘-고 있-’, ‘-있-’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한국어의 최다 빈도 용언인 ‘있다’는 그 실상을 대강 드러냈다.

하지만 ‘있다’와 관련되었으나, 아직 주목받지 못한 부분도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하나인 다음과 같은 예문에 천착해보려고 한다.

- (1) 가. 재형이는 이 일과 관련이 있다.
 나. 보경이는 민기와 친분이 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관심이 있다.
 라. 김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예문을 ‘NP이 있다’ 구성으로 명명한 후, 논의를 진행한다.¹⁾ 본고에서는 이러한 ‘NP이 있다’ 구성의 ‘있다’는 소재나 소유의 의미로 분석하기 어려우며,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성처럼 행동한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예문의 ‘있다’는 ‘있다’의 차원에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NP이 있다’ 구성으로 분석하여 문법적 특징과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 (2) 가.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성일 가능성을 논증한다.
 나. 하나의 구성처럼 행동하는 ‘NP이 있다’의 문법적 특징을 파악한다.

1) (1)은 목정수·박용배(2016), 목정수(2017) 등에서 이미 설명된 것들을 참고로 한 것이다. 이들 논의에서는 (1)과 같은 예문을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있다’를 기능동사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증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으로 통칭하려고 한다.

다. 하나의 구성처럼 행동하는 ‘NP이 있다’의 의미를 분석한다.

필자의 과문함 탓이었으나, 기존 연구에서 ‘NP이 있다’를 다룬 논의를 많이 보지 못하였다.²⁾ 목정수·박용배(2016), 목정수(2017) 외에는 찾기 어려웠다. 목정수·박용배(2016), 목정수(2017)에서는 ‘NP가 있다’를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으로 분석하고 있다.³⁾ 하지만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 과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NP이 있다’가 어떠한 문법적인 특성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 앞서 소재나 소유의 ‘있다’와 ‘NP이 있다’의 차이를 드러내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NP이 있다’ 구성의 의미를 분석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통사 구조에 따라 ‘NP이 있다’를 둘로 나눈다. 하나는 ‘NP1와 NP2가 있다’이고(1가-나), 다른 하나는 ‘NP1에/에게 NP2가 있다’이다(1다-라). 본고에서는 이러한 두 통사구조의 의미를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고 가정한다. 더불어 두 통사구조가 공유하는 의미 영역도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3장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논의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 ‘NP이 있다’ 구성의 특징

이 장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의 특징을 논의해보려고 한다. 본고에서는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성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 장에

2) 이는 사전의 처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서는 ‘NP이 있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하지만 (1)과 같은 예문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두루 쓰이는 것이므로, 사전에서도 처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1)과 같은 예문은 역사적으로도 발견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특히 목정수(2017: 134-135)에서는 본고의 ‘NP이 있다’(예: 관련이 있다)를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있다’를 기능동사로 분석한 것이다. 또한 ‘관련’과 같은 명사를 비주어 논항으로 보고, 이러한 명사들이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복합서술어를 이루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동사 구문은 ‘있다’가 소유의 의미로 사용될 때로 한하여 가능하다고 처리한다. 본고에서도 이러한 논의에 대체로 동의한다. 다만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의미로 이들이 더욱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서는 이를 입증하는 것에 초점이 놓인다. 이를 위해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은 ‘NP이 있다’의 ‘있다’가 기존의 소재, 소유의 ‘있다’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NP이 있다’의 독자적인 성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다음으로 다룰 것은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성처럼 행동하는지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여러 통사적인 장치를 바탕으로 점검할 것이다.

2.1 소재, 소유의 ‘있다’와 ‘NP이 있다’ 구성의 차이

앞서 언급했듯이, ‘있다’는 소재와 소유로 크게 구분되어왔다. 소재와 소유에 해당하는 예문은 다음과 같다.

- (3) 가. 방에 철수가 있다(소재).
나. 철수는 책이 있다(소유).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재의 ‘있다’와 소유의 ‘있다’는 통사 구조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소재의 ‘있다’는 ‘NP1에 NP2가 있-’으로 실현되지만, 소유의 ‘있다’는 대개 ‘NP1이 NP2가 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1)과 (3)을 비교해본다.

먼저 ‘있다’를 ‘계시다’로 대치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1)과 (3)의 차이를 밝혀본다.

- (4) 가. 방에 철수가 있다.
나. 방에 할아버지께서 계신다.
다. 철수는 책이 있다.
라. *철수는 책이 계신다.
마. 철수는 책이 있으시다.

- (5) 가. 할아버지께서는 이 일과 관련이 있으시다.
나. *할아버지께서는 이 일과 관련이 계시다.
다. 할아버지께서는 민기와 친분이 있으시다.
라. *할아버지께서는 민기와 친분이 계시다.

- 마. 철수는 영희에게 관심이 있다.
- 바. *김 선생님께서는 이 선생님에게 관심이 계신다.
- 사. 김 선생님께서는 이 선생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 아. *김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인기가 계신다.
- 자. 김 선생님께서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으시다.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재의 '있다'는 주어의 의미 자질에 따라 '계시다'로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소유의 '있다'는 '계시다'로 바뀌지 못하고, '있으시다'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 소유의 '있다' 구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점은 'NP이 있다' 구성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된다. 즉, (5)와 같이 'NP이 있다'의 '있다'는 '계시다'로 대치되기 어려우나, '있으시다'로의 교체는 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소유의 '있다'는 '계시다'로의 대치가 어렵고, '있으시다'로 교체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NP이 있다' 구성과 유사한 것이다. 또한 문장 형식으로도 소유의 '있다'와 'NP이 있다'는 비슷한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이중 주어 구문의 형식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NP이 있다' 구성을 소유 구문의 하나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통해 소유의 '있다' 구문과 'NP이 있다' 구성의 차이를 확인한다.

- (6) 가. 재형이는 이 일과 관련이 있다.
- 나. *재형이는 관련이 있다.
- 다. 보경이는 민기와 친분이 있다.
- 라. *보경이는 친분이 있다.
- 마. 철수는 영희에게 관심이 있다.
- 바. *철수는 관심이 있다.
- 사. 김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 아. *김 선생님은 인기가 있다.

- (7) 가. 철수는 책이 있다.
- 나. *철수는 영수와 책이 있다.
- 다. 할아버지께서는 책이 있으시다.
- 라.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와 책이 있으시다.

(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P이 있다’ 구성이 쓰인 문장에서는 공동격 논항이나 여격 논항이 없을 경우 비문으로 분석된다.⁴⁾ 하지만 ‘있다’ 소유 구문에서는 그러한 논항이 불필요하다.⁵⁾ 이는 (7)에서 드러난다. 따라서 (1)과 같은 예문을 소유 구문의 하나로 처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⁶⁾

이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 ‘NP이 있다’ 구성이 쓰인 문장은 소재 및 소유의 ‘있다’와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관점에서 ‘NP이 있다’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 연구에서는 ‘NP이 있다’를 하나의 구 구성으로 분석하는 관점이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를 다음 절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2.2. 하나의 구 구성으로서의 ‘NP이 있다’

본고에서는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 구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이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절에서는 몇 가지 통사적인 점검 장치를 바탕으로 ‘NP이 있다’가 구성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실험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실험의 핵심은 ‘NP이 있다’의 ‘NP’와 ‘있다’가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의 고정적인 상태로 쓰이느냐’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몇몇 장치를 정리하여 제시한다.

(8) 가. ‘NP이 있다’를 수식하는 품사는 무엇인가?

-
- 4) 익명의 심사자께서 (6)의 비문들은 ‘NP’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 본고 역시 그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하지만 본고는 ‘NP’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NP이 있다’ 전체를 보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NP이 있다’를 ‘있다’와 구분하기 위해 (6)과 (7)을 설정한 것이다.
- 5) (7나, 라)의 공동격 논항과 주어 논항의 어순 교체가 일어나면 정문이 된다(영수와 철수는 책이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께서는 책이 있으시다). 하지만 어순 교체가 일어날 경우, 중의적인 해석이 발생한다. 접속된 구성으로 파악할 수도 있고, 공동 소유의 의미로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의적인 해석은 본고에서 다루는 ‘NP가 있다’ 구성의 의미와 구분되는 점이다. 후술하겠지만 ‘NP가 있다’ 구성은 중의적인 해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 또한 ‘있다’ 소유 구문과 ‘NP가 있다’ 구성을 구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6) 더불어 기존 연구에서는 소유 구문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 분석하였다(임동훈 1997, 이성우 2019가 참고). 하지만 ‘NP이 있다’ 구성이 쓰인 문장을 이중 주어 구문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이 쓰인 문장을 이중 주어 구문으로 파악하지 않는 관점을 취한다.

나. ‘NP이 있다’는 분리될 수 있는가?

다. ‘NP이 있다’에서 ‘NP’와 ‘있다’는 각각 생략될 수 있는가?

(8가)는 수식어를 바탕으로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NP’와 ‘있다’가 각각 구분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만일 관형어가 수식한다면 ‘NP이 있다’의 ‘NP’는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부사어가 ‘NP이 있다’를 수식한다면, ‘NP이 있다’를 단일한 구성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8나.다)는 ‘NP이 있다’가 고정적인 구성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라면, ‘NP이 있다’가 분리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고정적인 형태가 아니므로, ‘NP’와 ‘있다’ 중 하나가 생략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파악하였다.

이를 전제로 하고, ‘NP이 있다’ 구성의 특징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먼저 (8가)를 점검한다.

(9) 가. 재형이는 이 일과 (큰/크게) 관련이 있다.

나. 보경이는 민기와 (많은/?많이) 친분이 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많은/?많이) 관심이 있다.

라. 김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큰/?크게) 인기가 있다.

(9)는 (8가)를 (1)에 대입해본 것이다. 이를 통해 관형어의 수식은 가능하나, 부사어의 수식은 이보다는 어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NP이 있다’의 ‘NP’가 어느정도 독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이는 ‘NP이 있다’의 ‘있다’ 또한 어느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사항은 ‘NP이 있다’의 ‘NP’와 ‘있다’ 사이에 부사어를 삽입하는 것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10) 가. 재형이는 이 일과 관련이 많이 있다.

나. 보경이는 민기와 친분이 많이 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관심이 많이 있다.

라. 김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이 있다.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P’와 ‘있다’ 사이에 부사어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9-10)을 종합한다면, ‘NP’와 ‘있다’는 각각 독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도 있다. 또한 (10)을 고려한다면, ‘NP’와 ‘있다’가 분리될 수 있다고 처리할 수도 있다(8나를 충족함). 하지만 이러한 처리는 다소 성급할 수 있다.

- (11) 가. 재형이는 이 일과 관련
 나. 보경이는 민기와 친분
 다. 철수는 영희에게 호감
 라. 김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인기

(11)은 ‘NP이 있다’ 구성인 (1)에서 ‘있다’를 삭제한 예문이다. 본고의 직관상, (11)의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⁷⁾ 이러한 사항은 NP이 ‘있다’의 ‘있다’의 의미적인 역할이 그리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NP이 있다’에서 실질적인 의미는 ‘NP’가 드러내고 있음을 뜻하며, 소유나 소재의 ‘있다’ 구문의 ‘있다’와 (1)의 ‘있다’가 다르다는 것을 방증한다.⁸⁾ 따라서 본고는 ‘NP이 있다’의 ‘있다’가 완전히 독자적인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주장은 다음의 예문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 (12) 가. *재형이는 이 일과 있다.
 나. *보경이는 민기와 있다.
 다. *철수는 영희에게 있다.
 라. *김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 있다.

7) 익명의 심사자께서 (11)은 비문에 가깝고, (11)이 만일 정문처럼 느껴진다면 해당 명사 뒤에 높은 빈도로 ‘이/가 있다’가 뒤따르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당히 중요한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현재 본고의 여력으로는 이에 대한 빈도 조사까지는 하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후속 연구로 심화해보려고 한다. 다만 중요한 점은 (11)이 정문/비문 판정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는 “NP이 있다”에서의 ‘있다’의 역할과 관련된다는 점일 것이다.

8) (3)의 예문에서 서술어인 ‘있다’를 삭제하면 비문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된다(*방에 철수가, *철수는 책이). 따라서 (11)의 ‘있다’와 (3)의 ‘있다’는 독자성 여부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 우리 차는 지금 철수에게 있다.

(12)는 ‘NP이’ 있다 구문인 (1)에서 ‘NP이’를 삭제한 예문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NP이’ 있다 구문에서 ‘NP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12)의 ‘있다’가 일반적인 ‘있다’가 아니라서, ‘있다’는 ‘NP’와 함께 행동해야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12다-마)에서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12마)와 같이, 소유나 소재의 ‘있다’ 구문은 ‘-에/에게’ 논항을 취할 수 있으나, (12다-라)의 예문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는 (12다-라)의 ‘있다’가 (12마)의 ‘있다’와 다르다는 점을 암시한다.

더불어 ‘NP’와 ‘있다’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3) 가. *재형이는 관련이 이 일과 많이 있다.

나. *보경이는 친분이 민기와 많이 있다.

다. *철수는 관심이 영희에게 많이 있다.

라. *김 선생님은 인기가 우리 반 학생들에게 많이 있다.

(10)에서 논의했듯이, ‘NP이 있다’에는 부사어 삽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점을 근거로 ‘NP’와 ‘있다’를 각각의 독자적인 단위로 파악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13)의 시도처럼, 공동격 논항이나 여격 논항이 ‘NP이 있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NP’와 ‘있다’가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NP’와 ‘있다’의 사이에 쓰일 수 있는 성분은 한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볼 때, ‘NP’와 ‘있다’를 각각의 완전한 독자적인 단위로 규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어느 정도 결속력을 가지고 ‘NP’와 ‘있다’가 구와 같은 단위를 형성하여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NP이 있다’에서 의미적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NP’이며, ‘있다’는 기존의 소유나 소재의 ‘있다’와는 다른 것으로서 단독으로 서술어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이처럼 만일 ‘NP이 있다’가 구와 같은 단위를 형성한다면, ‘NP이 있다’의 문법적인 지위가 무엇이냐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겨진다.

기존 논의에서는 ‘NP이 있다’를 ‘복합서술어’로 처리하였는데, 본고에서도 이에 동의한다(목정수 2017: 173-174 참고).⁹⁾ 이는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NP이 있다’의 ‘있다’가 어느정도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통해 ‘NP이 있다’ 구성에서 ‘있다’가 어떠한 의미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도 있다. 복합서술어의 판별 기준에서는 서술어의 의미 유무를 고려하지 않는다(이호승 2003 참고).¹⁰⁾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NP이 있다’는 복합 서술어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장에서 본고는 ‘NP이 있다’가 소유나 소재의 ‘있다’와 구분되며, 일정한 결속력을 가진 단위라는 점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NP이 있다’의 의미적인 특성을 살펴보려고 한다.

3. ‘NP이 있다’ 구성의 의미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NP이 있다’는 하나의 구처럼 행동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가진 ‘NP이 있다’ 구성의 의미를 논의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특히 본고에서는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NP이 있다’ 구성을 살펴본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 본고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을 통사 구조에 따라 크게 둘로 나눈다. 하나는 ‘NP1와 NP2이 있다’ 구성이고(1가-나), 다른 하나는 ‘NP1에게 NP2이 있다’ 구성이다(1다-라). 본고는 전자를 대칭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후자는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다룬다. 다만 후자는 의미에 따라 전자로도

9) 앞에서 언급했듯이, 목정수(2017: 174)에서도 ‘NP이 있다’를 복합서술어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0) 기능동사에 대한 주요 논의로는 홍재성(1999), 이선웅(2005) 이병규(2009)를 들 수 있다. 또한 복합서술어에 대해서는 이호승(2001, 2003, 2007)에서 자세히 정리된 바 있다. 기능동사구와 복합서술어의 구분 기준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나, 차이도 있다. 그중 가장 큰 차이는 구를 이루는 용언의 의미의 구체성 여부에 있다. 즉, 가장 추상적인 동사를 곧 기능동사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하다’를 들 수 있다(양명희 1998, 정연주 2015, 이형주 2016 참고). 이러한 관점에 서면, ‘NP이 있다’는 다소 애매한 경우일 수 있다. ‘있다’ 또한 ‘하다’만큼 추상적인 용언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NP이 있다’는 전형적인 복합서술어 구성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기능동사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있다’가 ‘하다’보다는 의미적으로 구체적이라고 보고, ‘NP이 있다’를 기능동사구보다는 복합서술어에 가까운 것으로 판별한다.

교체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3.1 ‘NP1와 NP2이 있다’의 의미: 대칭성

이 절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이 공동격 논항을 취하는 구조인 ‘NP1와 NP2이 있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동격 ‘-와’ 논항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문에 대해 점검해본다. ‘-와’ 논항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 (14) 가. 철수는 영희와 결혼한다.
 나. 영희와 철수가 결혼한다.
 다. 영희는 영수와 결혼하고, 철수는 철희와 결혼한다.

(14)와 같은 예문에 대해 기존 논의에서는 대칭 구문으로 분석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구문의 한 특징으로 공동격 논항과 주격 논항의 어순이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어순 교체에 따라 중의성 여부에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였다(이필영 1989 참고).¹¹⁾ 즉, (14가)의 경우 중의적으로 파악되지 않지만, (14나)의 경우 (14가)와 같이 해석될 수도 있고, (14다)와 같이 풀이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14나)가 (14가)로 파악되는 경우라면 서술어인 ‘결혼하다’는 대칭 동사로 간주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대칭 구문의 특징은 ‘NP이 있다’ 구성에서도 포착할 수 있다. 다만 중의성 여부에서 다르다.

- (15) 가. 보경이는 민기와 친분이 있다.
 나. 민기와 보경이는 친분이 있다.
 다. ⇨ 민기는 세진이와 친분이 있고, 보경이는 초롱이와 친분이 있다.

(15가-나)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NP1와 NP2이 있다’ 구성에서도 공동격 논

11)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14가)는 보통 (14나)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본고 역시 이에 동의하나, 대화 맥락에 따라 (14가)가 (14다)로 해석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항과 주어 논항의 어순은 교체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대칭 구문과 동일하다. 하지만 의미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14나)와 달리 (15나)는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15나)는 (15가)로만 해석될 뿐, (15다)와 같은 의미로는 풀이되지 않는다.

이처럼 (14)와 같은 구문과 ‘NP이 있다’ 구성은 의미적인 모습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NP이 있다’의 ‘NP’가 가지는 의미와 (14)와 같은 ‘결혼하다’ 류 동사의 의미적인 특징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P이 있다’의 ‘NP’는 대칭적인 속성을 보유한 명사구가 자리한다.¹²⁾ 이로 인해 ‘NP이 있다’는 대칭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14)와 같이, ‘결혼하다’ 류와 같은 동사는 전체 담화 맥락에 따라 대칭적이라는 의미를 동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이성우 2014 참고). 따라서 이러한 중의성 여부는 ‘NP이 있다’와 (14)와 같은 구문의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NP이 있다’는 대칭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점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예문이 실현될 수도 있다.

- (16) 가. 여기 모인 사람 간에 친밀함이 있다.
 나. 두 사물 간에 유사성이 있다.
 다. *여기 모인 사람 간에 친밀하다.
 라. *두 사물 간에 유사하다.
 마. 여기 모인 사람끼리는 친밀하다.
 바. 두 사물끼리 유사하다.
 사.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친밀하다.
 아. 두 사물은 서로 유사하다.

(16가-나)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P이 있다’ 구성은 반드시 ‘-와’ 논항이 문장 내부에 꼭 실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칭성을 의미하는 성분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NP이 있다’ 구성은 쓰일 수 있다. 예컨대 (16가-나)의 ‘간’과 같은 어휘를 통해 대칭성의 의미를 드러낸다면, ‘-와’ 성분이 없어도

12)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 말뭉치를 대상으로 검색해본 결과, ‘NP’자리에 올 수 있는 명사는 ‘연관’, ‘거리’, ‘관계’, ‘상관’, ‘차이’, ‘공통점’ 등이었다. 이러한 ‘NP’들은 모두 대칭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NP이 있다’ 구성이 가능한 것이다.

이는 대칭 용언이 쓰이는 구문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이는 (16다-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NP이 있다’ 구성은 대칭성을 반드시 동반하지만, ‘유사하다’나 ‘친밀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반드시 대칭성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16다-라)의 ‘간’과 같은 어휘는 대칭성을 전제하나, ‘유사하다’나 ‘친밀하다’와 같은 동사들은 맥락에 따라 대칭용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적인 모순으로 인해, (16다-라)는 비문으로 파악되는 것으로 판단된다.¹³⁾

하지만 다른 성분을 통해 대칭성이라는 의미가 보완되면, ‘유사하다’나 ‘친밀하다’와 같은 동사들도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인 예로는 ‘끼리’나 ‘서로’를 들 수 있다.¹⁴⁾ 대칭성의 의미를 보유한 성분이 같은 문장에 실현되면, ‘유사하다’나 ‘친밀하다’와 같은 용언은 대칭 용언으로만 분석된다. 즉, 맥락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이로 인해 (16마-아)와 같이 ‘유사하다’나 ‘친밀하다’와 같은 용언이 ‘NP가 있다’ 구성 대신 쓰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NP1와 NP2이 있다’의 대칭성은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도 드러난다.¹⁵⁾

(17) 가. 이것은 우리나라의 전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나. 단편 [엄마의 발톱]에 나오는 어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다. 이 모든 공간에는 공통점이 있다.

(17)의 예문 또한 ‘NP1와 NP2이 있다’의 구성을 취한다. 하지만 (16가-나)의 ‘NP1와 NP2이 있다’와는 다소 의미가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16가-나)의 예문이 주어와 공동격 논항이 어떠한 ‘관계’를 서로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라면, (17)은 주어와 공동격 논항을 ‘비교’하는 예문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13) ‘친밀함이 있다’와 ‘친밀하다’, ‘유사성이 있다’와 ‘유사하다’의 이러한 차이는 어쩌면 ‘있다’의 의미가 어느 정도 살아 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다.

14) ‘끼리’의 의미는 정상희(2010)을, ‘서로’의 의미는 박진호(2007)을 참고할 수 있다. 둘 모두 복수를 전제로 하며 상호성과 배분성이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보유했다.

15) 다음의 예문은 <21세기 세종 말뭉치>에서 검색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예문이 바로 (17가)이다.

(17나-다)는 (17가)와 문장 구조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마찬가지로 ‘비교’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17나)는 주어와 공동격 논항의 어순이 바뀌는 예로 생각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어와 공동격 논항의 어순과는 상관없이 ‘NP이 있다’ 구성은 단일한 해석만 허락한다. 이러한 점에서 (17나)는 ‘NP1와 NP2이 있다’의 예문으로 파악된다. (17다) 또한 공동격 논항이 없으나, 비교의 의미로 해석된다. 각각의 공간이 지니는 공통되는 사항을 언급하는 예문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이 또한 (16가-나)에서 확인한 바 있는 공동격 논항을 요구하지 않는 ‘NP이 있다’의 예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비교’의 의미 또한 대칭성이라는 의미를 전제로 한다. ‘비교’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과 어떠한 대상이 서로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인지 작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NP1와 NP2이 있다’의 기본적인 의미는 대칭성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다만 ‘NP이 있다’ 구성의 ‘NP’에 어떠한 명사가 위치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즉, ‘NP’의 의미에 따라 주어와 공동격 논항이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있고(16가-나 참고), 주어와 공동격 논항을 비교하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하는 것이다(17의 예문 참고).¹⁶⁾

이러한 비교의 의미는 다시 ‘동등 비교’와 ‘차등 비교’로 세분화될 수 있다(이연옥 2018 등). 이중 ‘NP이 있다’ 구성은 동등 비교와 차등 비교 중, 동등 비교의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등 비교의 개념은 최근에 도재학·허인영(2019)에서 구체화되었다. 도재학·허인영(2019: 168-171)에서는 언어유행론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동등 구문 유형을 8가지로 나누었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8) 가. ㉠-㉠-㉠: (비교어구+기준어구), 비교 내용, 동등 술어

예) 철수와 영희가 키가 같다.

나. ㉠-㉠-㉠: 비교어구, 기준어구, 동등 기준 표지, 비교 내용, 동등 술어

예) 철수가 영희와 키가 같다.

다. ㉠-㉡-㉠: (비교어구+기준어구), 동등 정도 표지, 비교 내용

16) 대칭 구문을 형성하는 대칭 용언이 비교를 의미하는 용언으로 바뀔 경우 비교 구문이 된다는 점과 일맥상통한다(대칭 구문: 철수는 영희와 결혼한다 ⇒ 비교 구문: 철수는 영희와 다르다).

- 예) 철수와 영희가 동등하게 키가 크다.
- 라. ㉠-㉡-㉢: 비교어구, 기준어구, 동등기준표지, 동등정도표지, 비교 내용
 예) 철수가 영희와 동등하게 키가 크다.
- 마. ㉠-㉢: 비교어구, 기준어구, 동등기준표지, 비교내용
 예) 철수가 영희만큼 키가 크다.
- 바. ㉡-㉠: 비교어구, 기준어구, 동등정도표지, 비교내용, 소유서술어
 예) 철수가 영희와 같은 발 사이즈를 갖고 있다.
- 사. ㉡-㉡: 비교어구, 기준어구, 동등기준표지, 비교내용, 소유서술어
 예) 철수가 영희만큼 돈을 가지고 있다.
- 아. ㉢: 종속적 비교내용, 비교어구, 기준어구, 동등성 형식
 예) 키로 치면, 철수와 영희가 동등하게 크다.

이를 바탕으로 (17)에서 제시한 ‘차이가 있다’, ‘거리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와 같은 예문이 (18)의 어떠한 유형에 대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정확한 유형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앞 장에서 논의했듯이, ‘차이가 있다’, ‘거리가 있다’, ‘공통점이 있다’와 같은 구성을 ‘NP이 있다’로 실현된 하나의 복합서술어로 간주한다면, ‘㉠-㉠-㉡’이나 ‘㉠-㉠-㉢’의 유형에 부합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NP이 있다’ 구성이 쓰인 비교 구문을 ‘㉠-㉠-㉡’이나 ‘㉠-㉠-㉢’ 둘 다 해당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보다 엄밀히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재학·허인영(2019: 173)에서 ‘㉠-㉠-㉡’과 ‘㉠-㉠-㉢’을 구분하는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아래에 제시한다.

- (19) 가. 철수와 영희가 키가 같다.
 나. *철수의 키가 영희가 같다.
 다. 철수가 영희와 키가 같다.
 바. 철수의 키가 영희와 같다.

도재학·허인영(2019)에서는 ‘㉠-㉠-㉡’과 ‘㉠-㉠-㉢’을 구분하는 근거로 위와 같이 속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제시하여, (19가-나)와 (19다-라)를 구분한다. 이러한 시도를 ‘NP이 있다’ 구성에 적용해보기로 한다.

- (20) 가. 그 책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은 차이가 있다.
 나. *그 책의 내용의 차이가 이 책의 내용이 있다.
 다. 그 책의 내용이 이 책의 내용과 차이가 있다.
 라. *그 책의 내용의 차이가 이 책의 내용과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NP이 있다’ 구성은 ‘-와’ 논항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속격 구성으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와’ 논항의 위치를 고려하여 ‘NP이 있다’ 구성이 ‘ \square -①-⊖’이나 ‘ \square -①-⊙’에 모두 해당한다고 처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속격 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NP이 있다’ 구성이 사용된 비교 구문은 ‘ \square -①-⊖’의 유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이와 같이 ‘NP이 있다’는 공동격 논항을 취하여 대칭성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NP’의 의미에 따라 관계를 의미하거나, 동등 비교를 의미하게 된다. 더불어 ‘NP이 있다’는 공동격 논항뿐만 아니라 여격 논항을 취하기도 하며, 이를 통해 비대칭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세히 논의할 것이다.

3.2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의미: 비대칭성과 대칭성

이 절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이 여격 논항을 취하는 구조인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논의에서 언급된 바 있듯이,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와’와 ‘-에’가 교체되는 양상이 있다(이의중 2017: 170 참고). 이는 ‘NP이 있다’ 구성에서도 나타난다.

- (21) 가. 이 일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
 나. 이 일은 그 사건에 관련이 있다.

본고의 직관으로는 (21가)와 (21나)는 의미 차이를 포착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와’와 ‘-에’의 교체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근거로 ‘NP1와 NP2이 있다’와 ‘NP1에/에게 NP2이 있다’를 단순한 조사 교체로 가정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NP1과 NP2이 있다’와 ‘NP1에/에게 NP2이 있다’는 구분되는 부분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22) 가. 나는 철수에게 호감이 있다.
 나. *나는 철수와 호감이 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에/에게’와 ‘-와’는 항상 교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NP1에/에게 NP2이 있다’가 ‘NP1과 NP2이 있다’와 구분되는 면이 있다고 가정하고, 이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21)과 같이 ‘-와’와 ‘-에’의 교체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이러한 지점까지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한다.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의미를 관찰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예문을 살펴본다.

- (23) 가. 나는 철수에게 관심이 있다.
 나. *나는 철수와 관심이 있다.
 다. 나는 철수와 서로 관심이 있다.

(23가-나) 또한 (22)와 마찬가지로, ‘-에/에게’와 ‘-와’가 교체되기 어려운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예문으로 판단된다. ‘-에/에게’와 ‘-와’의 교체가 어려운 이유는 ‘관심’이라는 명사의 의미적인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심’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가지는 일방적인 감정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¹⁷⁾ ‘관심’의 이러한 의미는 ‘NP1과 NP2이 있다’가 가지고 있는 대칭성이라는 의미와 충돌한다. 따라서 ‘NP1과 NP2이 있다’의 구성으로는 쓰이지 못하고,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구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관심’의 이러한 의미로 인해 ‘NP1에/에게 NP2이 있다’는 비대칭성이라

17)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심’의 뜻풀이로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어떤 사람이 어떠한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마음이 끌린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는 의미 자질을 보유하게 된다.¹⁸⁾

다만 주목할 것은 (23다)의 예이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로’라는 교호성 자질을 가진 성분이 문장 내부에 추가되면, ‘NP1에/에게 NP2이 있다’가 ‘NP1와 NP2이 있다’로 바뀐 구성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관심이 있다’와 ‘호감이 있다’와 같은 구성에서는 ‘서로’라는 성분이 개입해야 대칭적인 의미가 가능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양정석(1996: 363)에서는 대칭동사 아닌 동사의 문장이 ‘서로’가 갖는 의미적인 자질로 인해 교호성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고, 이를 상호 구문으로 구분한 바 있다. 양정석(1996)의 논의를 따른다면, (23)과 같은 예는 상호 구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교체 현상에 대해서는 이의중(2017)의 논의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의중(2017: 172-175)에서는 ‘-와’와 ‘-에’ 논항이 교체될 수 있는 용언의 목록을 제시하면서,¹⁹⁾ 그러한 용언들의 공통점으로 ‘논항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상호적이되, 그 상호성이 대칭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비대칭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를 제시하고 있다. 즉, 문장의 전체 의미가 대칭적이라면, ‘-와’ 논항을 취하고, 비대칭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에’ 논항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정석(1996)과 이의중(2017)의 논의를 모두 존중한다. 그리고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구성은 기본적으로 비대칭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서로’에 의해 대칭성을 확보하게 되면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에/에게’가 ‘-와’로 교체되어 ‘NP1와 NP2이 있다’의 구성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처리하려고 한다. 이와 함께 추가로 언급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대칭적인 의미와 비대칭적인 의미는 맥락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확인해본다.

(24) 가.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나는 희선이와 호감이 있다.

나. (10년 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나는 희선이에게 호감이 있다.

18) (22)에 제시된 ‘호감이 있다’와 같은 구성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19) 용언들의 목록 중에는 본고의 논의 대상인 ‘NP이 있다’ 구성은 제외되어 있다. 이의중(2017)에서는 ‘NP이 있다’ 구성과 같은 복합적인 구성보다는 단일한 용언 목록을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연관되다, 연관시키다, 연관짓다’ 등의 용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연관이 있다’로 바뀔 수 있으므로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다.

- 다. (아직 잘 모르지만) 나는 희선에게 호감이 있다.
 라. *(아직 잘 모르지만) 나는 희선이와 호감이 있다.

(24가)는 ‘나’와 ‘희선’은 ‘호감’이라는 관계를 대칭적으로 형성했음을 의미한다. 즉, ‘나도 희선에게 호감이 있지만, 희선이 또한 나에게 호감이 있다’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4나)는 ‘나’ 혼자 비대칭적으로 ‘희선’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이라는 감정을 전달한 예문이다. 다시 말해 (24가)는 ‘나’와 ‘희선’이 서로 호감이 있음을 확인한 예문이고, (24나)는 ‘나’는 호감이 있으나 ‘희선’은 어떠한 감정인지 모를 때 사용하는 예문인 것이다. 이러한 조사 교체와 관련된 의미 차이는 (24다-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 주목할 사항은 ‘서로’와 같이 교호성 자질을 가진 부사가 없더라도, 맥락이 있으면 ‘NP1에게 NP2이 있다’의 ‘-에/에게’가 ‘-와’로 교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NP1에게 NP2이 있다’는 구성은 원칙적으로는 비대칭적이지만, 맥락에 따라 대칭적인 의미를 보유하게 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즉, 전체 담화 맥락이 ‘NP이 있다’의 대칭성과 비대칭성을 가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해본다. 먼저 본고는 ‘NP1에게 NP2이 있다’ 구성은 일반적으로 비대칭적인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된다고 보았다. 하지만 ‘서로’와 같은 성분이나 맥락의 도움을 받아 문장 전체가 대칭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에/에게’가 ‘-와’로 교체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더불어 이와 함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칭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예문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에/에게’가 ‘-와’로 교체되기 어렵다.

- (25) 가. 수미는 수학에 흥미가 있었다.
 나. *수미는 수학과 서로 흥미가 있었다.
 다.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 재주가 있었다.
 라. *나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에 서로 재주가 있었다.
 마. 이 책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바. *이 책은 나와 서로 의미가 있다.

(25)의 예문에서 파악할 수 있듯이, ‘-에/에게’가 ‘-와’는 서로 교체되기 어렵다.20)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나 맥락을 통해 대칭성의 의미를 보완하는 것이 ‘NP1에/에게 NP2이 있다’ 구성이 사용되는 모든 예문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 (25)를 면밀히 살펴본다. 먼저 (25가)는 주어인 ‘수미’는 수학이라는 대상을 향하여 흥미가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는 예문이다. 하지만 ‘-에/에게’가 결합한 대상인 수학은 무정물이어서 주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25가)는 비대칭적인 의미로만 해석된다. (25다)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만 ‘-에/에게’가 결합한 대상이 무정물이 아니라, 사태라는 점에서만 (25가)와 구분될 뿐이다. 따라서 (25가, 다)는 주어가 여격 논항에 대해 어떠한 일방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대칭적으로만 해석되어 (25나, 라)는 비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비대칭성은 주어가 유정물이고, 여격 논항이 무정물이어서 발생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비대칭성의 방향은 유정물에서 무정물인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유정성 여부가 비대칭성의 방향까지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25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마)는 무정물인 주어 논항이 유정물인 여격 논항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25마)는 주어인 ‘책’이 여격 논항인 ‘나’를 향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예문인 것이다.21) 따라서 무정물인 주어 논항이 유정물인 여격 논항을 향해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25)의 예문을 고려했을 때, 주어 논항이 여격 논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NP1에/에게 NP2이 있다’ 구성이 사용된다고 정리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22)

20) (25)의 예문은 목정수·박용배(2016: 76)를 다소 변형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회 및 사석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보내주신 것이기도 하다.

21) 물론 ‘책’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또한 여격 논항인 ‘나’가 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25마)를 (25가, 다)와 다른 것으로 구분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책이 보유한 어떠한 내용(속성)이 여격 논항인 ‘나’에게 비대칭적으로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문이라고 파악하여, (25마)를 (25가, 다)와 같은 관점을 취한다. 이는 ‘책’이 주어라는 사실까지 고려한 것이다.

22) 목정수·박용배(2016: 77)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에서 ‘NP’에 ‘인기’가 위치한 경우만을 따로 구분하여 논항으로 착점을 요구하는 예로 따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인기가 있

- (26) 가. 그 선생님은 우리반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
 나. 그 선생님은 우리반 학생들에게서 인기가 있다.
 다. 한국 드라마는 중국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
 라. 한국 드라마는 중국 사람들에게서 인기가 있다.

(26)은 여격 논항이 주어 논항에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인 ‘NP1에/에게 NP2이 있다’ 구성으로 생각된다. (26가)에서 주어 논항인 ‘선생님’은 ‘학생들’로부터 인기가 있는 대상이다. 즉, (26가)는 ‘인기’라는 ‘NP’가 ‘학생들’에게 시작하여 ‘선생님’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인 예문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26다)에도 적용된다. 다시 말해 (26다)는 여격 논항인 중국 사람으로부터 형성된 ‘인기’가 한국 드라마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인 예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26)의 예문은 여격 논항에서 시작한 ‘인기’가 주어 논항에 일방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대칭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NP1에/에게’의 ‘NP1’은 출처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인기’의 출처가 ‘우리반 학생들’, ‘중국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문법적으로도 실현되는데, ‘-에게’가 ‘-에게서’로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26나, 라).²³⁾ 더불어 (26)은 다음과 같이 바뀔 수도 있다.

- (27) 가. 그 선생님은 우리반에서 인기가 있다.
 나. 한국 드라마는 중국에서 인기가 있다.

(27)은 (26)의 ‘우리반 학생들에게(서)’와 ‘중국 사람들에게(서)’가 ‘우리반에서’와 ‘중국에서’로 바뀐 예문이다. 비록 교체되었으나, 본고의 직관으로는 (26)과 (27)의 의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에게서’가 ‘-에서’로 바뀔 수 있는 이유는 은유의 인지 과정과 관련된다. 즉, ‘우리반’과 ‘중국’을 ‘우리 반 학생’과 ‘중국 사람’이 은유된 것으로 분석하는 방식이다.

다)와 같은 구성 또한 비대칭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3) 이와 관련해서는 정연주(2018)를 참고할 수 있다. 특히 정연주(2018: 214-215)에서는 유정 체언이 출처 역할을 할 때, ‘-에게’는 ‘-에게서’로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김민국(2017)을 참고할 수 있다. 특히 김민국(2017: 168)에서는 ‘에서’ 주어가 유정성이 높은 개체를 포함한 ‘처소’ 명사구가 환유로써 유정물로 해석 가능하거나, 출발점의 의미를 지닌 처소 명사구가 은유를 통해 유정물로 해석이 가능할 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중 후자가 (26)에 적용될 수 있다. 즉, (27)에서 출발점의 의미를 지닌 처소명사구인 ‘우리반’과 ‘중국’은 은유를 통해 (26)의 ‘우리반 학생’과 ‘중국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26)의 ‘-에게서’는 (27)과 같이 ‘-에서’로 교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²⁴⁾²⁵⁾

이처럼 ‘NP이 있다’ 구성 중 하나인 ‘인기가 있다’는 ‘-에/에게’가 ‘-에게서’로 교체되고, 인지 작용에 의해 ‘-에서’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 특이하다. 물론 중요한 것은 (27)의 예문 또한 비대칭성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25)와 달리, (27)은 여격 논항이 주어 논항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성이라는 점을 특기해둔다.²⁶⁾

4.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NP이 있다’ 구성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고 남은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2장에서는 ‘NP이 있다’는 ‘있다’의 의미로 많이 언급되어온 소유나 소재의 의미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NP이 있다’의 ‘있다’를 ‘계시다’와 ‘있으시다’로 교체하는 것이다.

24) 이러한 분석에는 ‘인기’의 의미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파악된다. ‘인기’는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게 보이는 관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인기’를 ‘1. 어떤 대상에 쏠리는 대중의 높은 관심이나 좋아하는 기운, 2. 사람의 기개’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곧 ‘인기’가 사람이나 대중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5) 정연주(2018: 214)에서는 무정 체언이 출처인 경우, ‘-에서’가 쓰인다고 논의하고 있다. ‘우리반 학생’이나 ‘중국 사람’이 우리반이나 중국으로 은유된 것이 아니라, ‘우리반’과 ‘중국’ 그 자체를 무정 체언으로 분석한다면, 정연주(2018)의 논의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26)과 (27)의 예문이 서로 관련된다고 보고, 위에서 은유의 과정에 의해 (26)에서 (27)이 파생된 것으로 설명한다.

26) 앞서 언급했듯이, 목정수·박용배(2016: 77)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에서 ‘NP’에 ‘인기’가 위치한 경우만을 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사항을 준중한 처리가 아닌가 한다.

둘째는 ‘NP이 있다’와 함께 나타나는 공동격 논항이나 여격 논항이 생략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는 ‘NP이 있다’가 하나의 구처럼 행동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는 ‘NP이 있다’ 구성이 하나의 구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이를 위해 세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였다. 첫째는 ‘NP이 있다’ 구성이 수식하는 품사가 무엇인지이고, 둘째는 ‘NP이 있다’의 분리가능성이고, 셋째는 ‘NP이 있다’에서 ‘NP’와 ‘있다’가 생략될 수 있는지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NP이 있다’ 구성은 하나의 구와 같은 성격을 가지나 하나의 단위로 완전히 굳어진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NP이 있다’가 복합 서술어로 분류할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3장에서는 ‘NP이 있다’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NP이 있다’의 의미를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먼저 ‘NP1과 NP2이 있다’의 의미를 논의하고, 대칭성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NP이 있다’는 ‘NP’의 의미에 의해 주어 논항과 공동격 논항의 ‘관계’나 ‘비교’의 의미, 그 중에서도 동등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장의 성분이나 맥락에 의해 대칭성을 확보하면, 공동격 논항이 생략될 수도 있다고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NP1에/에게 NP2이 있다’를 살펴보았다. 마찬가지로 대칭성과 비대칭성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NP1에/에게 NP2이 있다’는 기본적으로 비대칭성의 의미를 가지나, 맥락이나 문장의 의미에 의해 대칭성의 의미 자질을 확보하면, ‘-에/에게’가 ‘-와’로 교체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다만 비대칭적으로만 해석되는 예문에서는 ‘-에/에게’가 ‘-와’로 교체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더불어 ‘NP1에/에게 NP2이 있다’의 비대칭성의 방향에 대해 다루었다. 대개 주어 논항이 여격 논항에 영향을 미치나, 여격 논항이 주어 논항에 영향을 미치는 예문도 있다고 파악하였다.

하지만 ‘NP이 있다’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남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NP이 있다’에서 ‘있다’의 문법적 지위를 무엇으로 보느냐이다. 본고에서는 ‘NP이 있다’ 전체를 복합 서술어로 판단하였으나, ‘있다’의 지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논의하지 않았다. ‘있다’만을 대상으로 기능동사로 판별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다 자세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고영근·구본관(200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김민국(2017), “에서 주어의 통사와 의미”, 國語學 81, 國語學會, 145-189.

김정대(1993), “한국어 비교구문의 통사론”, 계명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창섭(2002) “경동사 하다는 두 가지 보어”, 관악어문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49-186.

남경완(2017), “있음(being)의 개념적 의미와 언어 표상”, 언어와정보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77-309.

도재학·허인영(2019), “동등 구문의 개념과 한국어 표현의 다양성”, 國語學 91, 國語學會, 149-193.

목정수(2017), “자동성 기능동사 구문과 논항의 격 실현 양상”, 한민족어문학 76, 한민족어문학회, 105-142.

목정수·박용배(2016), “서술명사의 논항의 격 실현 양상”, 語文研究 45-2, 語文教育研究會, 61-88.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國語學 3, 國語學會, 93-117.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國語學 50, 國語學會, 115-147.

박진호(2017), “한중일 세 언어의 존재 구문에 대한 대조 분석”, 언어와 정보사회 30,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311-340.

신선경(2002), ‘있다’의 어휘 의미와 통사, 태학사(국어학총서).

양명희(1998),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양정석(1996), “대칭 구문과 상호 구문의 의미 해석”, 언어 21-1, 한국언어학회, 347-370.

유현경(1998), 국어형용사연구, 한국문화사.

이병규(2009), 한국어 술어명사문 문법, 한국문화사.

이선웅(2005), 국어 명사의 논항 구조 연구, 월인.

이선웅(2012), 한국어 문법론의 개념어 연구, 월인.

이성우(2014), “조사-하고의 문법화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성우(2019가), “중세 한국어의 있다 구문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성우(2019나), “집합과 관련된 있다 구문의 한 유형”, 國語學 92, 國語學會, 283-317.

이연옥(2018), “현대 국어 비교 구문의 통사·의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의중(2017), “격조사 와와 관련된 논항 교체 현상에 대하여”, 형태론 19-2, 박이정,

169-197.

- 이필영(1989), “-와의 접속기능과 격표시 기능에 관하여”, 수련어문논총 16, 부산여자 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수련어문학회.
- 이형주(2016), “기능동사 ‘하다’에 대응하는 ‘받다’의 구문과 구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호승(2001), “복합서술어의 개념과 몇 가지 특성에 대하여”, 성심어문논집 23, 성심어문학회, 149-171.
- 이호승(2003), “국어 복합 서술어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호승(2007), “복합서술어의 특성과 범위”, 어문연구 55, 어문연구학회, 51-72.
- 임동훈(1997), “이중 주어문의 통사 구조”, 韓國文化 1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31-66.
- 정상희(2010), “한국어 배분표지 ‘들, 마다, 끼리, 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연주(2015), “‘하다’의 기능에 대한 구문 기반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연주(2018), “탈격 ‘에게’의 분포와 의미”, 언어와 정보사회 3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13-240.
- 홍재성(1986), “현대 한국어 대칭구문의 한 국면”, 동방학지 5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53-288.
- 홍재성(1999), “기능동사 구문의 한 시각: 어휘적 접근”, 人文論叢 4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35-173.
- 홍재성 외(1997),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이성우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HK 연구교수)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4252

전화 번호 : 033-248-2902

전자 우편 : mummy719@hallym.ac.kr

원고 접수일 : 2020. 08. 11.

원고 수정일 : 2020. 10. 30.

게재 확정일 : 2020. 11. 11.